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 후보자격·2억원 출연금 논란

시체육회 규정 “현 회장 사퇴 동시에 출마예정자도 사직”
 반면 대한체육회 “10일 이내 출마 의사 표출 뒤 직무정지”
 “당선 이후 회장 출연금 3년 내 2억원 납부 하도록 규정”

김장준 광주시체육회 첫 민선 회장의 사퇴로 인해 60일 이내 보궐선거 치러져야 하는 가운데 후보자 자격과 당선자의 2억원 출연금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김 회장이 16일께 사무국에 사표를 제출하면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5월 중순 이전에 신임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표 제출 이후 10일 이내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되어야 하며 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선관위는 구성과 동시에 5일 이내에 선거일정을 확정해야 한다.

사퇴로 인해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겸직 제한에 따른 후보자 사퇴 시기를 놓고 현 광주시체육회와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 규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체육회 규정은 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장이 출마를 할 경우 겸직 제한으로 인해 현직에서 사퇴 한 뒤 출마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사퇴 시기는 체육회장의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출마 예정자도 사퇴를 해야 한다.

김 회장이 16일 사직서를 제출하면 출마를

연두해 두고 있는 각 구별 체육회장과 종목별 체육회장도 동시에 사퇴의사를 밝혀야 한다.

반면 대한체육회는 회장의 사퇴로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자는 10일 이내 출마 의사를 밝히고 현 직에서 직무정지 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회장 당선 이후 납부하는 출연금 2억원 규정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장준 회장은 당선 첫 해인 지난해 6월 규정에 따라 체육발전기금 명목으로 출연금 2억원을 납부했다. 규정은 임기 3년 동안 매해 2억원, 총 6억원에서 3년 동안 2억원 납부로 바뀌었다.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신임 회장의 임기는 전임 회장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기 때문에 오는 2023년 2월 정기총회 이전 까지도다.

새로운 당선자가 전임 회장이 납부했다는 이유로 출연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각 종목단체와 행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각 종목단체장의 경우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보궐선거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우선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 규정을 따를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러 “2억원 출연금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있어 직무대행이 선임되면 보궐선거 이전에 정기총회 등을 통해 규정을 바꾸는 것과 여의치 않을 경우 후보자 제출 서류에 출연금을 납

부 확인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11일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16일께 문서화 된 사직

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체육회는 부회장 9명 중 1인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해 보궐선거 전까지 운영한다.

기동취재본부



‘부동산투기’ 규탄 광주 청년진보당은 15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앞에서 ‘부동산 투기’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 2분기 접종’ 75세·특수·유·초·중 보건교사...내달 1일부터



광주지역 코로나19 백신 2분기 접종이 다음 달 1일 75세 이상과 특수교육시설 종사자, 유·초·중등 보건교사, 교정시설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65세부터 74세이하 일반

예방접종센터 중심 화이자·AZ 접종
 5월, 65세~74세 미만 노인·항공승무원
 6월 유·초등 저학년 교사 접종 시작

인 접종은 5월께 시작된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이달 말까지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한 접종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1일부터 5개 자치구에 설치되는 예방접종센터를 중심으로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서구 영주종합체육관·남구 다목적체육관 예방접종센터는 각각 오는 22일, 다음달 1일 개소 예정이다. 북구 전남대학교 스포츠센터·동구 문화센터는 다음달 중순, 광산구광주보훈병원 재활체육관은 5월께 문을 연다.

가장 먼저 개소하는 서구와 남구예방접종센터에서는 1일부터 거주지 구분없이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접종 대상자는 8만6342명이며 온라인 예약을 비롯해 사전등록, 이동, 접종, 귀가, 접종 후 모니터링까지 지역사회에서 책임 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구축됐다.

동시에 학교와 돌봄 공간에 대한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수교육 및 장애아 보육, 유·초·중등 보건교사, 어린이집 간호인력, 결핵·한센인·노숙인·교정시설 종사자 순으로 접종이 이뤄진다.

이어 5월부터는 65세부터 74세 이하 노인, 항공 승무원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다.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교사와 만성신장질환·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경찰·해경·소방·군인 등 사회필수 인력에 대한 접종은 6월께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시 방역당국 관계자는 “다음달 부터 시작되

는 75세 이상 접종도 순조롭게 진행 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센터 등의 설치를 이달 안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광주지역 1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대상자 2만9690명 중 2만5233명이 접종을 마쳐 84.9%를 기록했으며 이중 이상반응은 166건이 접수됐다.

또 외국인 근로자 5인 이상 고용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진단검사는 1700여명 중 1086명이 검사를 마쳤으며 이 중 1027명 음성, 59명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최윤희기자

오늘의 한걸음, 미래의 행복백신

행복으로(로) 걷기 광산

시민 & 동아리 모집

이렇게 신청하세요

개인 (주민)

W

- 1 워크온 앱 설치 및 실행
- 2 광산구 커뮤니티 그룹 행복으로 가입

동아리 (5인 이상 단체)

- 1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2 동아리 가입 신청서류 제출

문의 | 관할동 행정복지센터